

2011년 상반기 국내 주류시장 동향

1. 국내 주류

2011년 상반기 국내 경기 상황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구제역 파동과 한파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 상승 및 유가 급등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여파로 경기 회복에 대한 불안감은 물론 소비 심리 위축세도 지속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악재 속에서도 상반기 국내 주류시장은 약 154만kℓ를 출고해 전년대비 3.3% 상

〈표 1〉 2011년 상반기 주류 출고 현황

단위 : kℓ, 백만원, %

구분	출고량			매출액			
	수 량	전년대비	점유비	금액	전년대비	점유비	
증류주	희석식소주	634,109	100.92	41.04	1,517,709	100.68	42.32
	증류식소주	62	74.70	0.00	952	72.62	0.03
	일반증류주	1,363	141.10	0.09	3,670	113.10	0.10
	리큐르	329	57.22	0.02	1,254	53.45	0.03
	위스키	1,926	86.14	0.12	76,794	78.12	2.14
	브랜디	51	170.00	0.00	1,996	179.66	0.06
발효주	맥주	886,909	105.17	57.41	1,876,066	106.06	52.32
	청주	10,333	99.28	0.67	47,233	99.45	1.32
	과실주	7,491	94.05	0.48	53,457	91.81	1.49
	기타주류	2,356	129.52	0.15	6,958	131.41	0.19
합계	1,544,929	103.29	100.00	3,586,089	102.65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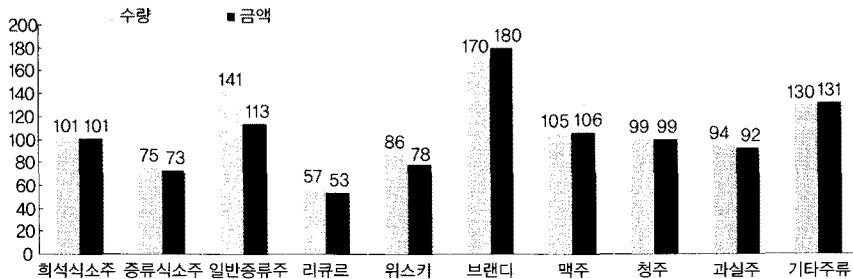
승 하였으며 매출액은 2.9% 상승한 3조5천억 원의 규모를 보였다.

주류별로 살펴보면 소주는 634,109kl를 출고해 지난해보다 0.9% 증가했으며, 매출액은 0.7% 증가한 1조5천2백억 원의 규모를 보였고 맥주는 출고량 기준 5.2% 증가한 886,909kl, 매출액 기준 6.1% 증가한 1조8천8백억 원을 기록 하였다.

점유율(출고량 기준)면에서 살펴보면 소주와 맥주가 각각 41.0%, 57.4%로 주류전체 출고량의 대부분인 98.4%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밖의 주류로는 위스키가 전년대비 13.86% 감소한 1,926kl를 출고되었고, 청주는 10,333kl, 과일주는 7,491kl를 출고해 각각 전년대비 0.7%, 6.0% 감소하였다.

(그림 1) 2011년 상반기 전체주류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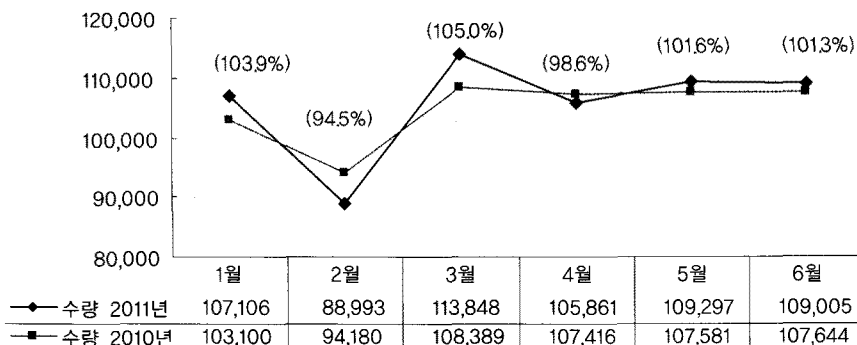


1. 희석식소주

2011년 상반기 소주 시장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634,109kl가 출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0.9%) 상승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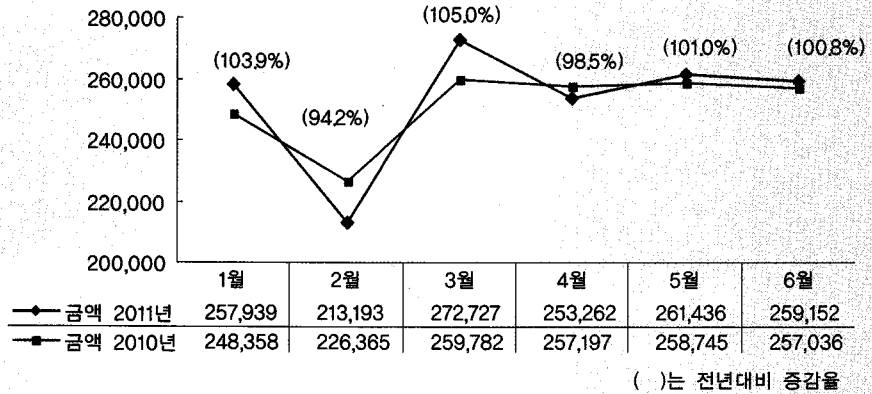
월별로는 지난해와 비슷한 출고량으로 신년회 등의 모임이 많은 1월과 각종 행사가 많은 3월에

(그림 2) 2011년 상반기 월별 출고량(kl)



()는 전년대비 증감을

〈그림 3〉 2011년 상반기 월별 매출액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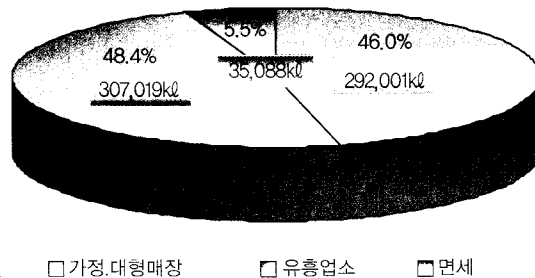


출고량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고 2월은 다른 달에 비해 출고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설연휴의 영향으로 보인다.

소주 상반기 용도별 출고 현황을 보면 가정용(대형매장용 포함)이 점유율 46.1%(292,001kℓ)로 전년보다 1.1% 감소한 반면 유흥업소용은 점유율 48.4%(307,019kℓ)를 차지하며 전년 보다 2.0% 증가했다.

면세용은 지난해 상반기 보다 11.2%(35,088kℓ) 상승 하였는데 그 중 해외수출이 87.4%(30,677kℓ)로 전년대비 10.8% 증가했으며 주요 소주 수출국은 일본, 중국, 미국 등으로 약 42개국으로 판매되고 있다.

〈그림 4〉 2011년 상반기 용도별 점유율(%)



상반기 소주시장의 가장 큰 변화로는 기업의 인수와 통합을 들 수 있는데 BN그룹의 대선주조 인수를 비롯하여 롯데칠성의 충북소주 인수 등으로 부산지역과 충남지역의 업체별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또한 순한소주(알코올 도수 17도 이하)의 약진이 돋보인다.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순한소주는 2007년 무학의 '좋은데이' (알코올 도수 16.9%)를 시작으로 현재 '롯데주류BG의 '처음처럼 쿨' (16.8%), 금복주의 '스타일' (16.7%), 선양의 '버지니아' (16.5%)와 올해 새롭게 선을 보인 진로 '즐거찾기' (15.5%), 대선주조의 '즐거워예' (16.2%) 등이 순한소주 시장을 이끌고 있다.

〈표 2〉 연도별 상반기 순한소주 출고 현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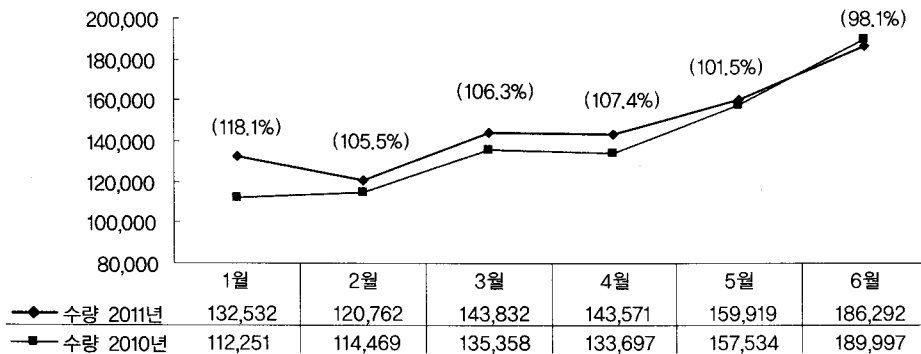
구분	희석소주 전체(kℓ)	순한소주(kℓ)	점유율(%)
2007년	598,568	2,785	0.47
2008년	624,887	2,852	0.46
2009년	600,513	6,514	1.08
2010년	598,682	19,851	3.32
2011년	601,580	45,209	7.52

2. 맥주

2011년 상반기 맥주 출고량은 886,909kℓ로 전년동기(843,306kℓ)대비5.2% 증가 하였는데 예년에 비해 일찍 시작된 무더위와 신제품 출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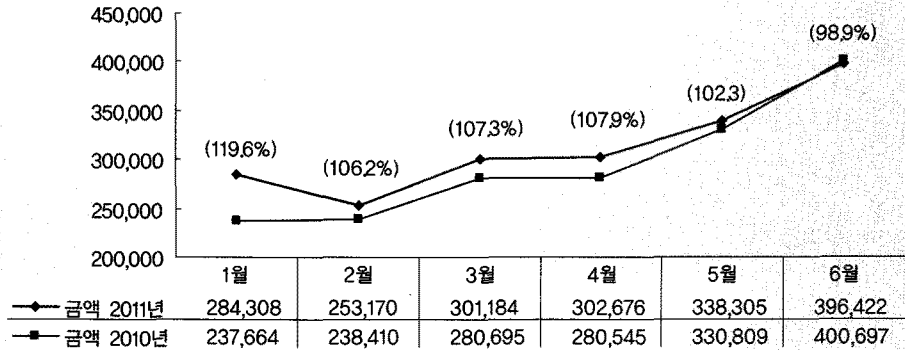
월별로는 지난해와 비슷한 출고량을 보이고 있으며 날씨와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맥주의 특성상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출고량도 증가 추세를 보여 5월에 비해 6월 출고량이 16.5% 증가했다.

〈그림 5〉 2011년 상반기 월별 출고량(kℓ)



()는 전년대비 증감율

〈그림 6〉 2011년 상반기 월별 매출액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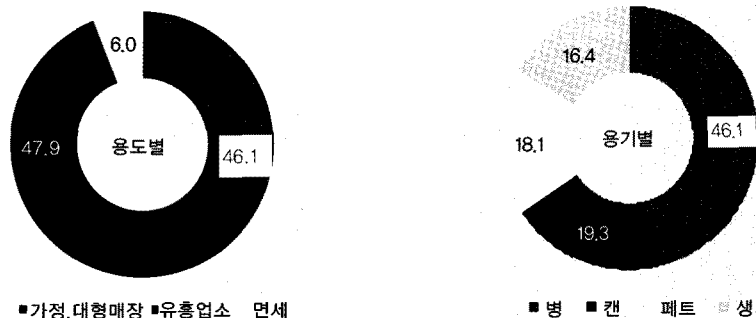
()는 전년대비 증감율

맥주의 용도별 출고 현황을 살펴보면 가정용(대형매장용 포함)이 46.1% (408,707kl)로 전년보다 5% 증가 하였고 유통업소용은 47.9% (424,954kl)로 전년보다 4% 증가 하였다.

면세용은 전년(53,247kl)보다 15.7%의 상승 하였는데 그 중 해외수출이 71.6%(38,140kl)로 전년에 비해 큰 폭(23.1%)으로 증가 하였다. 주요 수출국은 홍콩, 몽골, 싱가포르, 중국 등 약 51개국에 판매되고 있으며 면세용 중 군납은 24.8%(13,191kl)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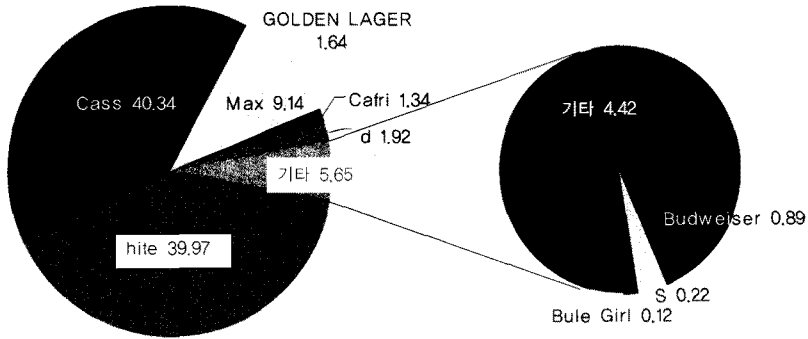
용기별로는 병맥주 점유율이 46.1%(408,803kl)로 전년대비 4.3% 증가한 가운데 캔맥주가 19.3%(171,563kl)로 전년대비 21.1% 대폭 증가 한 반면 생맥주의 점유율은 16.4%으로 전년대비 3.5% 감소하였고 페트맥주는 18.1%(160,917kl)로 비슷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7〉 2011년 맥주 용도, 용기별 점유율(%)



제품별로 살펴보면 hite와 Cass가 각각 약 40% 정도의 비슷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뒤를 Max(9.4%), hite d(1.9%), GOLDEN LAGER (1.6%), Cafri(1.3%) 등이 따르고 있다.

〈그림 8〉 상반기 제품별 점유비(%)



국내 주세법상 맥주가 아닌 기타주류로 분류되는 제3맥주는 전량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일본 맥주 시장에서의 꾸준한 인기로 매년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전년(50,750kl) 보다 82.5% 증가한 92,602kl를 수출하였다.

II. 수입주류시장 동향

상반기 수입주류의 총량은 전년대비 7.2% 증가한 57,138톤이며 수입액은 전년대비 0.8% 감소한 2억8백만 불이었다. 이는 맥주 수입량이 크게 늘었지만 수입 가격이 높은 위스키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맥주는 중량기준으로 수입주류의 4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7.52%(26,179톤) 증가하였고 수입금액 역시 25.63%(2천5백2십만불) 증가하였다. 주요 수입국으로는 네덜란드(18.6%), 일본(18.5%), 미국(16.4%), 중국(11.3%), 독일(8.7%) 순이다.

위스키는 중량과 수입금액 모두 각각 전년대비 13.2%(9,631톤), 15.2%(9천7백7십만불)의 감소를 보였으며 주요 수입국은 영국(93.1%), 미국(6.1%)이다.

포도주는 중량기준 전년대비 3.5%(12,184톤) 증가하였고, 수입금액은 12.6%(6천2십만불) 증가하였다. 수입국으로는 칠레(27.0%), 스페인(21.1%), 이탈리아(16.0%), 프랑스(12.1%)순이며 칠레가 전년대비 30.8%로 크게 증가했다.

청주는 일본식 주류전문점의 확장과,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사케에 대한 꾸준한 인기로 중량기준 전년대비 13.8%(1,801톤)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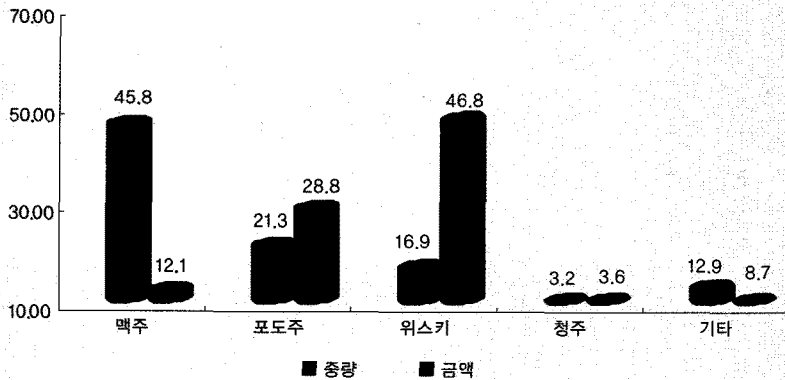
〈표 3〉 2011년 상반기 주류수입현황

(단위 : 톤, 천불)

구분	중량(톤)			수입액(천불)			2010년	
	중량	점유율	전년	대비	금액	점유율	전년	대비
수입주류계	57,138	100.00	107.16	208,871	100.00	99.24	53,321	210,481
맥주	26,179	45.82	117.52	25,200	12.06	125.63	22,277	20,059
포도주(원액포함)	12,184	21.32	103.46	60,243	28.84	112.59	11,776	53,508
포도주(유사포도주)	76	0.13	79.17	170	0.08	88.54	96	192
과실발효주(사과술 등)	278	0.49	93.60	392	0.19	92.24	297	425
청주	1,801	3.15	113.77	7,576	3.63	124.63	1,583	6,079
기타발효주(와인쿨러 등)	575	1.01	158.40	1,253	0.60	166.40	363	753
위스키	9,631	16.86	86.84	97,709	46.78	84.85	11,090	115,153
꼬냑	172	0.30	72.27	3,695	1.77	93.28	238	3,961
기타포도주	137	0.24	79.19	653	0.31	82.87	173	788
럼	261	0.46	99.62	570	0.27	107.55	262	530
진	193	0.34	185.58	595	0.28	203.77	104	292
보드카	502	0.88	115.14	1,754	0.84	136.60	436	1,284
기타리큐르(오가피 등)	2,182	3.82	116.62	5,419	2.59	126.58	1,871	4,281
브랜디	51	0.09	141.67	334	0.16	197.63	36	169
소주	59	0.10	178.79	267	0.13	173.38	33	154
고량주	2,318	4.06	115.15	1,408	0.67	128.00	2,013	1,100
데킬라	237	0.41	81.16	1,059	0.51	77.92	292	1,359
기타증류주	302	0.53	79.27	574	0.27	145.69	381	394
기타곡물발효주	-	-	-	-	-	-	1	7

※자료 : 관세청

〈그림 9〉 2011년 상반기 수입주류별 점유율(%)



※자료 : 관세청

그 밖에 진, 보드카, 브랜디, 리큐르 등도 전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수입주류전문점, 바(BAR) 등의 보편화와 대중화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져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III 향후전망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이 뚜렷하게 안정되기는 힘들어 보이며 소비자물가 상승 또한 예상되어 국내경기는 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주류시장의 이슈가 기업인수, 통합영업망 구축, 신제품출시로 볼 수 있다면 하반기 주류시장은 대형주류기업의 통합을 들 수 있다. 9월에는 (주)진로와 하이트맥주(주)가 통합법인으로 출범 하였고, 10월에는 롯데칠성음료(주)와 (주)롯데주류BG의 합병이 예정 되어 있다.

지역 업체간 제한적으로 전개되었던 경쟁형태는 대형업체들의 통합으로 인하여 유통망의 공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전국적인 경쟁형태로 확대되어 업체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맥주의 경우 이른 무더위의 영향으로 큰 폭의 성장세를 기대하고 있으나 예년보다 긴 장마가 악재로 작용하여 기대보다는 소폭 상승 할 것으로 보인다.

주류업체들은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춘 다양한 신제품 출시와 대중문화를 접목시킨 마케팅으로 소비자에게 다가 간다면 경기 불황속에서도 다소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본고의 통계는 한국주류산업협회(비회원사제외) 자료입니다.